

전 남



오손도손 고들빼기 손질

순천시 별량면 송기마을 주민들이 느티나무 그늘에서 수확한 고들빼기를 다듬고 있다. 씹새래한 맛이 특징인 고들빼기는 무더운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다. <순천시 제공>

서남해 실뱀장어잡이 합법화 되나

1t미만 규정 불법 양산...신안군 정부에 개선 건의키로

서남해 실뱀장어잡이 합법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어업 허가제도로 해경과 수산당국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어민을 위해 신안군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어 합법화의 길이 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안군은 20일 압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뱀장어 안감망 어업 안전성 조사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뱀장어 체포어업의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뱀장어잡이 어민이 4500~5000여명에 달해 신안에서 먼저 합법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용역은 ▲실뱀장어 안감망어업 안전성 ▲수산자원 보호 ▲어업과 관광의 상생협력 등을 조사한 제도와 방안이 제시된다.

어민들은 1~4월 사이에 신안 해역에서 2t 규모의 무동력 바지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고 있지만, 모두 불법이다.

신안 일차 자원도와 압해도 역삼부근 등에서 바지선 500여척이 조업에 나서 연간 3t을 잡아 200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바지선을 이용한 실뱀장어잡이는 신안지역이 전국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t 내외의 어선에 이동성 구획어업 허가를 내줬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1t 미만 어선에 무거운 어구를 싣고 나가 실뱀장어를 잡으면 전복 위험이 커 조업을 하는 어민은 전혀 없다.

서남해 실뱀장어잡이 어민 296명은 어업지도소와 해경의 단속이 심해져 지난 2007년 '신안·목포 실뱀장어 어업조합법'을 설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신안군 등 관계기관에 합법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지난해 11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실뱀장어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사)전국 실뱀장어어민유동연합회 백광석(45) 회장은 "실뱀장어 어획시기인 1~4월의 경우 다른 어종은 비수기여서 마찰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속없이 조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실뱀장어 포획은 특수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실뱀장어 종묘의 안정적 공급, 생계의 존도가 높은 가족형 영세어민을 위한 차원에서 바지선 어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권에 수용될 경우 실뱀장어 종묘의 안정적 수급과 수입 대체효과 등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양만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3cm 정도 이수시개 크기인 실뱀장어는 심해(深海)에서 부화한 후 쿠로시오(黑潮) 난류를 타고 서남해안까지 회유한다. 어민들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가는 실뱀장어의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치어를 잡는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갯벌에도 거름 준다

국립수산과학원, 비료·모래 살포·경운·기계화 등 농사기법 도입

서해안 갯벌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 품종인 바지락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래살포·채취기계 개발 등 농업기법이 도입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 갯벌연구소는 바지락의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기법인 모래 살포·경운·비료 살포·기계화·양식장 구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에 주로 서식하는 바지락은 지난해 생산량 4만393t, 수입량 3만8901t인 수산자원의 하나이다.

하지만 연안 간척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대량폐사 등으로 양식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남북관계 악화로 북한산 바지락 수입금지도 가격상승이 예상됐지만 국산 수입이 증가해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갯벌연구소는 바지락 유생 부착률을 높이기 위해 갯벌에 굽은 모래를 살포하고 경운 작업을 실시해 갯벌을 부드럽게 만들어 종패가 지속적으로 가입(加入)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생산량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서 원하는 작물을 고밀도로 재배하기 위해 비료를 뿌려 수확량을 늘리는 것처럼 바지락 양식에서도 비단도 향상을 위해 고형비료

등을 살포해 먹이생물의 밀도를 증진시켜 먹이 공급을 원활하게 해 성장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채취 비용 절감과 어촌의 고령화에 대비해 채취기계 개발은 물론 농촌의 경지정리 같은 양식장 구조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갯벌연구소 관계자는 "바지락 양식장의 폐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채취시기 조절과 함께 풍파 방지시설 개발 등 서식환경이 좋은 갯벌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영광 '보리술' 지역 특화

郡-한국주조 MOU...대표 전통주 개발

영광군이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 개발 등 술 관련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17일 전남도청 서재 필실에서 신규 법인인 (유)한국주조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주조는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부지 1만6000㎡ 규모에 62억 원을 투자해 다음달부터 쌀·보리막걸리·포도주 제조설비 공장을 지을 예정이

다. 이번 공장 유치로 7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주조는 그동안 영광 농가에서 생산해온 '대마 막걸리'의 기술을 전수받아 이를 산업화해 최근의 막걸리 인기를 반영한 우리나라 대표 토종 막걸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올해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광군은 보리와 보리술을 활용한 전통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 보리수매 중단에 대비해 보리와 보리술을 활용한 전통주 제조 기술을 연구 중이다. 올해 말까지 맑은 탁주 제조기술과 보리술 분말 첨가 비율에 따른 최적의 막걸리 제조법을 개발한 뒤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계획이다.

군은 행사장 등에서 전통주 시제품 시음회를 개최해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점검하는 한편 전통주에 어울리는 용기와 포장제도 개발 중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내년까지 보리전통주 대량생산 체계와 개발 컨셉트를 확립해 지역특산품으로 본격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계란 두개면 보약 필요없어요"

한국양계농협, 목포서 소비촉진 캠페인

"매일 2개의 완전식품 계란은 여름철 보약입니다."

한국양계농협(오정길 조합장)은 지난 16일 목포 유통센터(농협 하나로클럽)에서 계란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과 체험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벗짚계란 꾸러미 만들기·계란우 입히기·매직 풍선(달·별·아리)만들기계란을 이용한 캐릭터 요리 경진대회 등 계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이벤트와 시식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양계농협은 지난달 15일 서울 명동에서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된 중앙단위 계란 소비 행사에 이어 수원·대구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소비촉진 캠페인과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양계농협 관계자는 "산란계가 최고수준인 6300만마리가 사육되고 있지만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뇌물수수 혐의' 직무정지

목포수협조합장 사표

'뇌물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이 18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목포수협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선거일을 공고키로 하는 등 새 조합장 선출 준비에 들어갔다.

수협 정관에 따라 한달 이내에 처리된 조합장 선거에는 3~4명이 출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수협은 지난 3월 18일 김상현 조합장이 직무정지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이사가 직무대행 문체 등을 거론해 내분을 겪기도 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난해 6월 1년6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1천54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4월 처리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평등선거에 어긋났다"는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플러스부동산

년 수익률 10%이상책임보장 1억직접투자시 년 1000만원이상소득가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입야영림 계획 작성! 전국·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타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다

상담 T.062)226-3377 FAX.226-3399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면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병행지구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T.881-5986 H.011-601-5354 (사강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상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도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H.011-602-2532 (광주인동 상남동, 대인동 상남1-건물)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률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 142㎡(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할인금액 6천만

■ 주변 쇼핑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서 투자가치 상승 기대 최근 대림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입주주민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탐공인중개사 ◎ 대림124후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믿음 공인중개사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0평, 150평, 100평 매물(다량보유)

매도: 북광주 나들목 첨단지구 인근 일반주거지역 약 2,000평 4차로점 (물류센터, 공장)적합 평당 100만원

매도: 장성삼서면 계획관리지역 2,300평(공장, 물류센터, 창고)적합 4차선 도로점 제곱미터당 45,374원

매도: 첨단지구인근 진원 산토리 입야 5,000평 3,000평 평당 10만원(아산), 근린벨트(농원, 농장)적합

매도: 주유소 및 물로 센터 부지 약 1900평 건물 110평 매매가 24억원 주유소(현재영업중)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공단, 공장 매매, 임대 전문 공장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이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사, 자연농지,있음)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새롬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